

Maison

marie claire

2025 AUGUST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패션 디자이너 엘리 미즈라히 집

TREND

욕실 인테리어

FOCUS

광주요 그룹이 지은 한옥, 수경재
그랑 팔레 리노베이션 이야기
V&A 이스트 스토어하우스

HOTEL

리트릿 리조트

3daysofdesign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적인 디자인 축제 하이라이트

정가 10,000원



SPECIAL

3daysofdesign 2025

DESIGN REPORT

코펜하겐에서 열린 3일간의 축제를 통해 알아보는
북유럽 디자인의 흐름

THE BEST 25 HIGHLIGHTS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한
25가지 전시 하이라이트

INSIDE THE SCENES

글로벌 기자단과 디자인 앰배서더들의
시선으로 포착한 장면들

MOMENTS IN THE CITY

코펜하겐의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는
투어 가이드



3daysofdesign REPORT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3일간의 디자인 축제, 3daysofdesign. 도시 곳곳을 누비며 마주한 풍경과 축제를 이끈 총괄 디렉터와의 이야기를 통해 북유럽 디자인의 흐름을 읽어봤다.

EDITOR 원지은

Editor's Review

올해 '3daysofdesign'(이하 3dd)은 말 그대로 '디자인의 도시'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3dd의 공식 초청을 받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20여 명의 외신 기자들과 함께 코펜하겐 전역을 누비며 짜임새 있는 투어 일정을 따라 움직였다. 북유럽을 대표하는 브랜드의 전시부터 신진 플랫폼의 실험적인 시도, 이름조차 낯선 아티스트의 아틀리에까지 그 폭은 매우 넓고 깊었다. 낮에는 디자이너의 작업실과 골목 어귀의 소름을 오가며 창작의 현장을 마주하고, 저녁에는 디자인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아티스트들과 식사를 즐기며 작업 너머의 이야기를 듣는 친밀한 시간이 이어졌다. 도시의 결을 따라 디자인을 체험하도록 구성된 방식도 인상 깊었다. 항구를 가로지르는 보트를 타거나 자전거로 골목을 누비며, 전시장이라는 형식에서 벗어나 코펜하겐 전체를 무대 삼아 디자인을 '산책'하는 값진 경험이 이어졌다. 그렇게 코펜하겐이라는 도시의 리듬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이 축제가 도장깨기하듯 둘러보는 전시 관람이 아닌, 삶과 디자인이 만나는 밀도 높은 과정임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올해의 주제는 'KEEP IT REAL'. 이는 단순히 콘셉트를 넘어, 이번 페어

전반의 기조이자 방향을 관통한 키워드였다. 총 8개의 디자인 디스트릭트를 따라 469개의 전시가 펼쳐졌고, 127개국에서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독립 디자이너, 신진 플랫폼까지 참여자의 면면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다양했다. 하지만 중심은 분명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구조라는 것. 브랜드의 결과물보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디자이너의 태도에 집중하는 전시 방식은 관람객에게 더욱 생생한 경험을 제공했다. '밀란 디자인 위크'가 국제적 규모와 화려한 연출로 주목받는 자리라면, 코펜하겐은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밀도와 진정성으로 다가선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흐름은 크게 네 가지였다. 북유럽 디자인의 유산과 진화에 주목한 'Nordic Narrative', 예술과 문화의 경계를 탐색한 'Design & Culture', 순환과 지속 가능성에 주목한 'Sustainable Design',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시선을 담은 'New Voices, New Visions'. 이 흐름은 유행을 넘어, 올해 3dd가 지향하는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 코펜하겐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디자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해답은 '사람과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도시가 보여준 디자인의 모습이었다.



INTERVIEW

3days of design CEO 시그네 뷔르달 테렌지아니

올해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하기보다 디자인 페어의 본질적 목적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디지털, 문화, 창작 등 모든 면에서 과잉의 시대를 경험해왔습니다. 'KEEP IT REAL'은 지금이야말로 본질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이자, 진정한 자기 자신에 집중하자는 메시지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진짜'의 감각을 찾아가기 바라고, 감정과 공감과 인간미가 담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바랐습니다.

이 테마를 실제 전시와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했나요? 모든 참가자에게 스스로에게 더 깊이 질문해보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창작하나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래 지속되는 소재, 투명한 제작 과정, 감동 있는 이야기를 장려했죠. 그래서 많은 전시가 더 느리고 몰입적이며, 대화 중심의 형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디자인 디스트릭트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8개의 디자인 디스트릭트 중 일부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재편되었고, 이를 단순한 지리적 구획이 아닌 '개념적 이웃'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각 구역은 장인정신, 유산, 변화, 커뮤니티 등 다양한 가치를 탐구했죠. 또한 'i-포인트'라는 물리적 거점을 도입해 관람객이 정보를 얻고, 전담 매니저와 앰배서더를 배치해 방문객들이 사람들과 연결되며 축제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밀란, 파리, 런던 등 다른 페어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는 상업적 목적보다 '스토리텔링'에 더 집중합니다. 브랜드보다는 사람,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죠. 코펜하겐은 좀 더 인간적이고 친밀한 리듬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디자이너의 작업실, 마당, 주방 등 살아 있는 공간에서 디자인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강점이고, 사람들이 진정성을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가기 바라시나요? 열려 있는 포용적인 플랫폼,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써 내려가는 사람들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자인은 단지 기능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언어입니다. 그 안에 감정과 공감, 상상력이 담길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디자인'이 완성되죠. 디자이너가 주목받고, 아이디어가 자라나며, 관객이 삶 속에서 디자인을 새롭게 발견하는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날 노르딕 디자인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르딕 디자인은 오래도록 사회적 책임과 단순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보존'하기보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대화의 장으로 확장하고자 해요. 지금의



노르딕 디자인은 여전히 윤리와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람객들이 어떤 경험을 얻기 바랐나요? 감정을 느끼기 바랐습니다. 그것이 연결이든, 영감이든, 기쁨이든. 디자인의 진짜 힘은 우리를 움직이고 되돌아보게 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상기시키는 데 있으니까요. **m**

1 코펜하겐의 햇살 아래,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포스터 깃발이 따뜻하게 맞아준다. **2** 3dd의 CEO이자 총괄 디렉터 시그네 뷔르달 테렌지아니. **3** 그래픽 아티스트 안드레아스 사무엘손이 디자인한 2025 테마 포스터. 유기적 형태와 직관적 색으로 표현했다. **4** 자전거를 타고 누비는 코펜하겐 도심. **5** 물길 따라 흐르는 여유, 햇살과 디자인이 만나는 코펜하겐의 한낮.

THE BEST 25 HIGHLIGHTS

도시를 배경 삼아 펼쳐진 수백 개 전시 가운데 올해 3dd는 ‘북유럽 디자인의 유산과 정체성’, ‘예술과 문화의 경계’,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시선’이라는 네 가지 흐름을 통해 현재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중심으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 25가지를 키워드별로 소개한다.

EDITOR 원지은, 문혜준, 원하영



Nordic Narrative

북유럽 디자인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생활 구조에 맞게 재해석되며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아이코닉한 디자인은 현대적 미감으로 새롭게 복원되었고,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가 주목받았다. 거주의 구조를 탐구한 실험적 공간 구성부터 쇼룸을 넘어 호텔, 카페, 레스토랑으로 확장되는 공간 연출까지, 북유럽 디자인은 더 넓고 유연한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거주의 실험, 프라마

프라마는 이번 전시 <Structures of Living>을 통해 ‘사는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왜 거주 공간에서 더 실험적일 수 없을까?’라는 물음 아래, 전시는 두 공간에서 전개됐다. 먼저 스튜디오 스토어에서는 브루노 무나리와 벅민스터 풀러의 이론에서 영감을 받아, 압축된 삶의 구조 속에서도 감각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57a 아파트먼트는 실제 주거처럼 구성된 다이닝 룸과 라운지를 통해 프라마의 제품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수면, 휴식, 식사, 일 등 삶의 요소를 모듈형으로 보여준 이번 전시는 거주 방식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시도한 것. 함께 공개된 신제품 ‘레시오’, ‘시메트리’, ‘쁘띠 론드’ 시리즈는 조형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프라마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1, 2 스튜디오 스토어의 구조적 설치가 인상적이다. 3, 4 18세기 셰이커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57a 아파트먼트. 5, 6 아르텍과 마리에꼬의 조형성과 패턴 감각이 만났다. 7, 8, 9 로맨틱한 장식 디테일을 수놓은 테클라의 브로더리 앙글레즈 컬렉션.

핀란드 디자인의 만남, 아르텍&마리메꼬

핀란드를 대표하는 디자인 브랜드 아르텍과 마리메꼬가 첫 협업 컬렉션을 공개했다. 마리메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전시 <Artek+Marimekko>에선 알바 알토의 가구에 마이아 이슬라의 프린트를 더해 시각적 에너지와 구조적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특히 마리메꼬의 건축적 패턴 시리즈 '아키테티 Arkkitehti'를 활용해, 반복적이고 대담한 무늬가 자작나무 가구의 부드러운 곡선 위에서 새롭게 해석됐다. 이번 전시는 아르텍 창립 90주년을 기념한 프로젝트로, 린다 베르그로스가 공간 연출을 맡아 두 브랜드의 미학을 감각적으로 조율했다. 오는 9월 공식 출시를 앞둔 이 컬렉션은 기능성과 미감을 고루 갖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일상을 위한 예술'이라는 두 브랜드의 철학을 명확히 보여줬다.



미니멀리즘의 로맨틱한 변주, 테클라

절제된 심플함이 특징인 테클라의 디자인에 장식적인 변주가 가미됐다. 기능성과 감성의 균형을 탐구해온 코펜하겐 브랜드 테클라는 브랜드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장식적 요소를 적극 반영하며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브로더리 앙글레즈' 컬렉션은 테클라 특유의 미니멀한 컬러 팔레트를 유지하면서도 전통적인 유럽식 침구에서 영감을 받아 물결, 주름 등의 로맨틱한 디테일을 살린 것이 특징. 이불 커버는 엘로디, 아나이스, 펄의 세 가지 스타일로 구성됐으며, 베개 커버와 데코 쿠션 또한 각기 다른 수공 디테일로 완성도를 높였다. 전시 <Modern Romance>에서는 침대를 스타일링해 연출한 설치를 선보이며 컬렉션의 핵심인 장식성과 간결함의 대비를 강조했다. 공간 구성은 코펜하겐 건축 스튜디오 맨체 오펜슈타인이 함께 맡아 가구와 침구가 공간에 연결되는 방식을 섬세하게 구현했다.





쇼룸 너머의 세계, 엔트레디션

덴마크의 장인정신과 디자인 유산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전개해가는 엔트레디션은 아카이브 전시 <The Living Archive>를 쇼룸과 릴리 페트라 카페, 새롭게 문을 연 페트라 호텔에 걸쳐 확장했다. 오늘날까지 쌓아온 브랜드의 유산과 역사를 촘촘하게 엮어낸 핵심 공간 '더 라이브러리'에서는 최근 합류한 영국 디자인 스튜디오 인더스트리얼 퍼실리티의 데뷔 컬렉션 '롬브' 선반 시스템이 중심축 역할을 했다. 선반에는 책, 이미지, 오브제 등이 함께 전시되어 개인의 기억과 디자인의 연관성을 드러냈다. 1943년 건축가 카이 피스커가 설계한 부티크 호텔 페트라 역시 코펜하겐 디자인 호텔스와 협업해 복원을 마친 후 새롭게 문을 열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디자인 체험의 연장선으로 운영되었다.



오래도록 계승될 디자인, 프리츠한센

전통과 혁신의 교차점에서 선보인 프리츠한센의 전시 <Shaping Lasting Design>은 수리와 보존, 그리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디자인의 본질을 탐구했다. 브랜드가 축적해온 153년 역사의 집약이자 덴마크 디자인 유산의 방증인 셈이었다. 코펜하겐 중심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아카이브부터 신작, 수공예 시연과 관리법까지 하나의 흐름 속에 담아냈는데, 이는 가구가 단순히 소비되는 물건이 아닌 이어지는 관계라는 철학을 직관적으로 전한 구성이다. 한편, 근처 킹스 가든에 마련된 팝업 레스토랑 오랑제리에는 브랜드의 호스피탈리티 정신을 공간으로 풀어냈다. 야외와 실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성과 디테일은 시간이 지나도 편안함을 잃지 않는 프리츠한센 특유의 감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오감이 깨어나는 공간, 베르판

일상을 벗어나 시각, 청각, 촉각이 함께 반응하는 공간 속으로. 베르판은 몰입형 전시 <Living with Our Senses>를 통해 전설적인 디자이너 베르너 판톤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풀어냈다. 작품을 듣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는 판톤 디자인의 본질에 좀 더 깊게 다가가도록 했다. 판톤의 아이코닉한 클로버리프 소파는 촉각적인 패브릭을 통해 새로운 깊이를 더했고, 편 펜던트 조명의 조개껍데기 디스크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1980년대의 판톤 조명과 와이어 Ø18 포터블 조명,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 270 F 압채어는 각기 다른 감각의 결을 따라 판톤 디자인의 본질에 접근했다. 노래하듯 울리고, 마음을 움직이며, 디자인과 신체, 그리고 감각 사이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1 앤티레디션의 쇼룸 '더 라이브러리'에서 펼쳐진 <The Living Archive> 전시.

2, 3 앤티레디션 제품으로 꾸며진 페트라 호텔의 내부. **4, 5** 수리와 보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디자인의 본질을 탐구한 프리츠한센. **6** 오랑제리예트에서는 브랜드의 호스피탈리티 정신을 공간으로 풀어냈다. **7, 8** 시각, 청각, 촉각적 경험을 선사한 베르판. **9** 새롭게 선보인 270 F 압채어. **10** 1980년대의 판톤 조명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11** 1975년대 처음 출시된 Ø18 포터블 조명 또한 새롭게 태어났다.



1

신경미학에서 피어난 디자인, 무토

신경미학이라는 과학적 개념이 무토의 디자인 세계와 결합했다. 무토는 런던의 킨다 스튜디오와 함께 전시 <Grounded in Nature>를 통해 오감이 반응하는 몰입형 공간을 구성했다. 신경미학 개념을 기반한 설치는 도심의 루프톱에서 소리, 향기, 질감, 시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며 내면의 성찰과 자연과의 교감을 이끌어냈다. 전시 기간 중에는 디자인의 미래와 감각의 원리를 주제로 한 토크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는데, 이 또한 신경과학과 디자인이 만나는 접점을 탐구하며 공간이 정서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이와 함께 빔 월 조명, 미스트 커피 테이블 등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들이 선공개되었으며,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무토 디자인 콘테스트 001'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돼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실험성과 차세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2



3

조형성과 유연성 사이, 몬타나

조형적 간결함과 모듈형 유연성이 다시 만났다. 몬타나는 1969년 에릭 라스무센이 디자인한 소파 시스템을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하며 브랜드의 새로운 챕터를 알렸다. 새롭게 공개된 패러다임은 직선형, 코너형, 푸프 모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탈착 가능한 커버와 교체 가능한 부품을 통해 수명 주기를 확장했다. 크바드랏, 가브리엘의 패브릭으로 구성된 새로운 옵션은 고강도 폼과 난연 소재, 청소에 용이한 높은 다리 등 기능적 요소까지 고려해 주거 공간은 물론 상업 공간에서도 적합하다. 이번 재출시를 통해 몬타나는 덴마크 디자인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유연한 삶의 방식에 맞춘 미래 지향적 디자인 언어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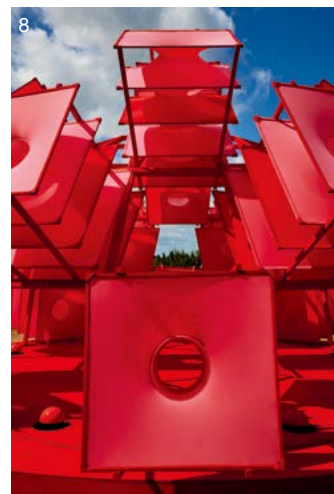
4

1, 2 코펜하겐 도심의 루프톱에서 펼쳐진 무토의 전시. 3, 4 다채로운 색상으로 꾸며진 몬타나의 쇼룸.



손끝의 유산, 로알 코펜하겐

올해로 창립 250주년을 맞은 로알 코펜하겐은 브랜드의 풍부한 유산과 시대를 초월한 예술성을 기념하는 몰입형 전시를 선보였다. 과거를 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의 참여를 중심에 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장인과 페인터들이 대표 컬렉션인 플로라 다니카와 블루 플루티드 플레인의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섬세한 수작업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새로운 인테리어 오브제를 론칭하며 브랜드의 확장된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블루 플루티드 플레인을 그래픽적으로 재해석한 '모티프' 컬렉션은 로컬 커피하우스와 협업한 팝업 카페를 통해 공개했다. 도자기를 테이블웨어 이상의 감각적 오브제로 풀어낸 이 공간에서는 커피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브랜드 경험이 이뤄졌다. 이 외에도 핸드 페인팅 워크숍, 250주년 기념 굿즈를 만날 수 있는 소품 숍 등 전통과 혁신이 유쾌하게 교차하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브랜드의 오늘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다.



섬유로 빛은 빛의 구조, 루이스 폴센

루이스 폴센은 조명이라는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 감각적 색채와 형태 실험이 담긴 대형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덴마크 출신 아티스트인 헨릭 뵁스코브와 함께 협업한 <Circle Dome Square>는 1971년부터 스칸디나비아 가정을 밝혀온 베르너 팬톤의 상징적인 판텔라 램프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작품이다. 곡선과 색감을 극대화한 돔 형태의 구조물은 마치 오래된 카메라의 렌즈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내부와 이어지며, 관람객이 색과 고요함 속에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빛을 다뤄온 브랜드가 섬유라는 전혀 다른 매체를 통해 공간을 탐색한 이 실험적인 작업은, 루이스 폴센이 감각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다.



회화적 일상, 헤이

헤이는 이번 시즌, 1966년 이탈리아 건축가 마리오 벨리니가 디자인한 모듈형 소파 '아만타'의 재출시 소식을 알렸다. 건축적 구조와 유연한 구성 방식이 돋보이는 이 소파는 복고적이지만 여전히 현대적인 감성을 지녔다. 여기에 생동감 넘치는 핸드 페인팅 아티스트 엠마 콜먼과 협업한 세라믹 테이블웨어 컬렉션 '라 피투라'도 함께 공개했다. 회화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패턴은 식탁 위에서 작은 예술 작품처럼 기능하며 그년만의 색채 감각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인다. 헤이 하우스 4층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이번 전시 기간에 라 피투라 컬렉션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코펜하겐 인기 레스토랑 LOCALE 21과 협업한 이 공간은 헤이가 디자인과 미식, 일상을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또 하나의 답변처럼 느껴진다.



5 핸드 페인팅을 시연한 로알 코펜하겐의 블루 플루티드 플레인 컬렉션. 6, 7, 8 강렬한 레드 컬러의 텍스타일 설치물을 선보인 루이스 폴센. 9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헤이의 아만타 소파. 10, 11 엠마 콜먼과 협업한 라 피투라 컬렉션.



고전과 현대의 교차, 칼한센앤선

칼한센앤선은 디자인의 형식과 소재, 전통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주목했다. 코펜하겐 브레드가데에 새롭게 오픈한 600㎡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개최한 <Framing Compositions>는 한스 J. 베그너의 CH290 시리즈와 드물게 선보이는 사무용 의자 CH621 스위블 체어 등 상징적인 디자인들과 신작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나나&요르겐 디첼의 비타 소파와 커피 테이블은 조형적 감각으로 시선을 끌었으며, 안커 백의 월 데스크는 작은 공간을 위한 유연한 워크스테이션으로 제안되었다. 루프톱 테라스에는 EOOS가 디자인한 엠브레이스 아웃도어 라운지 시리즈로 채워져 여유로운 흐름으로 전시를 마무리했다.



디자인과 함께 사는 법, 펴 리빙

올해 펴 리빙은 세 곳의 공간을 무대로 디자인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다. 브랜드 본사가 위치한 홀멘 디자인 디스트릭트에서는 400㎡ 규모의 쇼룸에서 <Living with Ferm>을 선보였다. 펴 리빙의 철학이 구체적인 공간으로 구현된 이 전시는 브랜드가 생각하는 일상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코펜하겐 중심부 콩겐스 뉘토르브 광장에 위치한 타워넷에는 팝업 카페 대폴 바가 마련되어, 새롭게 공개된 아웃도어 컬렉션 '대폴'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 또한 뉴 맥에서는 아파트먼트와 함께한 협업 전시와 북토크가 열렸다. 전설적인 건축가 욘 욘손의 집 Can Lis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컬렉션과 사진집 《Can Lis, Jørn Utzon》을 함께 소개하며 책과 공간, 디자인을 엮은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감각을 흔드는 디자인, 구비

구비는 브랜드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몰입형 전시를 통해 전통과 혁신, 감각을 아우르는 디자인 세계를 펼쳐냈다. 아프라&토비아 스카르파, 카를로 데 칼리의 재출시 작품으로 시작되는 전시는 AMDL CIRCLE(미켈레 데 루키)의 라탄 컬렉션, 린다 코른달의 미니멀한 선반 디자인 등 새로운 창작물로 이어지며 구비의 디자인 계보에 신선한 흐름을 더했다. 새로운 '비틀 바' 공간은 비틀 라인의 체어, 바 스톨, 라운지 체어로 구성되어 커피나 칵테일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감각적 휴식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한 캐나다 아티스트 브라이언 라이더를 초청해 구비의 디자인 언어를 회화로 재해석한 특별 전시를 선보였다. 감성적 유희를 통해 현대 인테리어의 정서를 시각화하고, 실내 사진과 함께 설치해 현실과 이미지의 경계를 흐리는 다층적 경험을 제안했다.

1 한스 베그너의 CH290 시리즈로 구성된 칼한센앤선 쇼룸. **2** 마리안 투센이 디자인한 톨립 펜던트와 연출한 공간. **3, 4, 5** 신규 컬렉션으로 채워진 홀멘에 위치한 펄리빙 본사. **6** 카를로 데 칼리가 디자인한 폴트로나 트리아 라운지 체어. **7** 파샤 아웃도어 라운지 체어. **8, 9**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일상 속 조각을 제안한 오도 코펜하겐.



살아 있는 기념비, 오도 코펜하겐

코펜하겐 노르드하운에 위치한 오도 하우스는 특별한 작품들로 채워졌다. 오도 코펜하겐의 아트 디렉터 크리스티안 뮐러 안데르센과 놉 아키텍츠가 협업한 전시 <Monuments>가 이곳에서 열렸다.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14명의 현대 작가들이 참여해 형태, 재료, 감정을 통해 '기념비'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석했다. 전통적인 거대 조형물이 아닌,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삶 속에 머무는 조용한 기념비들을 제안한 것이다. 신고전주의의 균형감과 현대 미니멀리즘의 절제된 미감을 조화롭게 풀어낸 이번 전시는 카페, 콘셉트 숍, 전시실, 안뜰 등 오도 하우스 전역에 걸쳐 전개되며, 디자인을 시간의 흐름 속 이야기로 풀어냈다. 공간을 위해 맞춤 제작된 오브제와 예술 작품, 빛과 질감이 정교하게 조율된 구성은 관람객의 속도를 늦추고, 디자인을 새롭게 마주하게 만든다.





© Federico Ceccarelli

1



© Federico Ceccarelli

2

Design & Culture

디자인은 이제 문화와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고전 조각이나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풀어내거나, 문화적 자산으로 남은 오래된 장소에 새로운 감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은 시간과 맥락을 품은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조각이 된 목재, 알피

알피는 전시 <Echoes of Form>을 통해 목재를 조각적 언어로 풀어낸 설치를 선보였다. 고전 조각가 토르발센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토르발센 미술관을 배경으로, 감프라테시가 큐레이션을 맡아 클래식한 형식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했다. 입구에는 리셉션 데스크 형태의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내부에는 14개의 목재 토템이 같은 높이의 받침 위에 놓여 마치 무대의 피날레 장면을 연상케 한다. 각각 다른 종류의 알피 베니어(얇은 나무판)로 마감된 토템은 목재의 결, 색감, 광택 등 다양한 질감을 보여주며, 실험성과 장인정신을 동시에 담아낸다. 넌도는 나무 껍질과 암석을 연상시키는 입체적 텍스처를 표현했고, 감프라테시는 잎의 결을 담은 곡선을 아름답게 드러냈다. 이 외에도 에스튜디오 캄파나, 피에로 리소니, 콘스탄틴 그르치치 등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알피 소재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소재와 형태, 전통과 기술 사이에서 디자인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



© Federico Ceccarelli

3

1 네오클래식 조각과 어우러지는 알피의 리셉션 데스크. 2, 3 토르발센 미술관 중정에 설치된 목재 토템 1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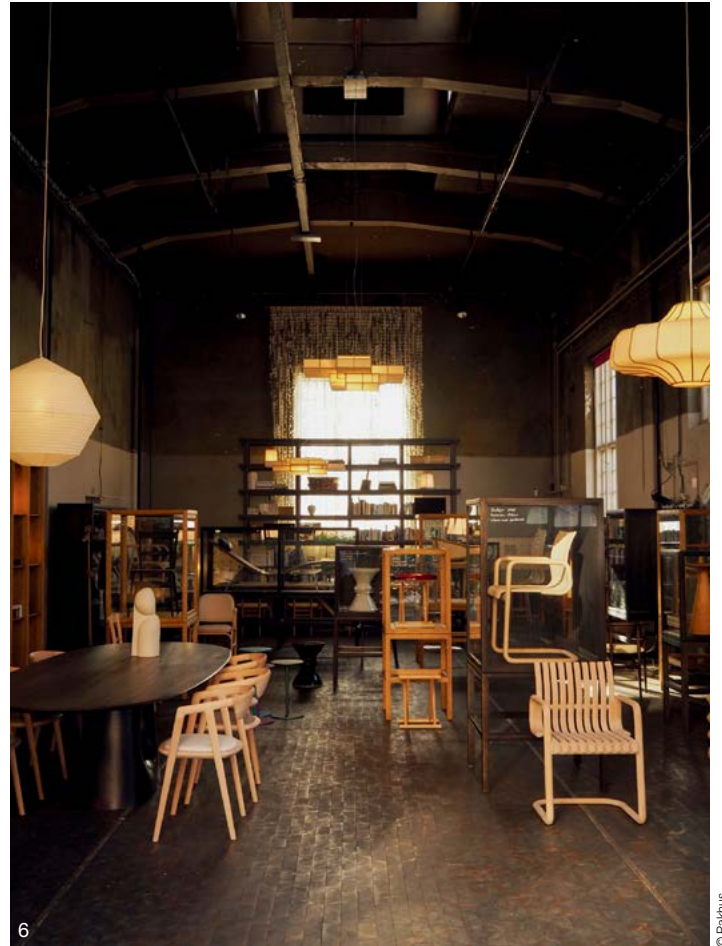
© Stefania Zanetti



© Stefania Zanetti

시간이 만든 공간, 타임앤스타일

일본 인테리어 브랜드 타임앤스타일은 항구 옆 오래된 벽돌 창고에서 전시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Design/Dialogue>로 매거진 아크저널이 큐레이션하고, OEO 스튜디오가 공간 설계를 맡았다. 전시장에는 올해 밀란 디자인 위크에서 처음 선보인 신제품들이 다시 한 번 관객을 맞이했다. 훗카이도산 오크로 제작된 모듈형 선반 '그리드 셀프', 정제된 디테일이 돋보이는 '뮤지엄 캐비닛' 시리즈, 전통 목공 기술과 화지를 접목한 조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일본 작가들의 공예품, 앤티크 오브제, 테이블웨어 등이 조화롭게 배치돼 공간 전체에 시간의 결을 더했다. 전통과 현대, 공예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이 전시는 타임앤스타일이 추구하는 '온고지신'의 철학과 과거에서 배워 미래를 짓는 태도를 차분하고 깊이 있게 보여줬다.



© Pakrus



7



8

세계 여행가의 오랜 집에서, 리 브룸

리 브룸은 브랜드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모색하는 전시 <From Here Now>를 통해 3dd에 첫 참여 했다. 장소는 19세기 말 동아시아 무역을 위해 세워진 이스트 아시아틱 컴퍼니의 본사였던 '아시아 하우스'에서 열렸는데, 이는 행사 이래 처음으로 이 공간을 개방한 사례이기도 하다. 리 브룸은 아시아 하우스 전체를 '세계 여행가의 오랜 집'이라는 콘셉트로 구성해 운송용 목재 상자, 수집된 오브제, 조명, 패브릭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전했다. 브랜드의 대표 조명을 또한 새로운 마감과 형태로 재해석했는데, 오리온 조명, 베스퍼, 출시 10주년을 맞은 크레센트 조명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 디자인되어 전시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포터블 테이블 조명 '챌트'가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4 화지로 만든 조명 '아마구모'. 5, 6 공예적 디테일과 절제된 아름다움이 담긴 신규 컬렉션. 7, 8 세계 여행가의 집을 테마로 꾸민 리 브룸의 공간.



Sustainable Design

지속 가능성은 소재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제작 방식과 공급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낮은 등급의 원목, 폐어망, 군사체 등 그동안 외면받던 자원을 디자인의 재료로 끌어올리거나, 자원 수거부터 생산까지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순환형 제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소재의 역설, 머테리얼 매터스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디자인 플랫폼 머테리얼 매터스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어떻게, 왜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을 중심에 둔다. 이번 전시는 이들의 첫 번째 해외 전시로, 장소 또한 의미심장하다. 코펜하겐의 감멜 독 창고는 19세기 초 항구 물류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소재의 순환과 유통을 주제로 삼은 이번 전시의 배경으로 적절했다. 1층에서는 미국 하드우드 수출협회(AHEC) 유럽 지부가 주최한 <No.1 Common> 전시가 열렸다. 목재 등급 중 상업적으로는 선호되지 않는 등급의 원목에서 흔히 발견되는 웅이, 색번짐, 불균일한 결을 가감 없이 드러낸 오브제들이 소개됐다. 세 디자이너 다니엘 스코필드, 안나 마리아 외프스테달 앙, 안두 마세보가 참여했으며, 제작은 영국의 벤치마크가 맡았다. 그 외에도 일상의 소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작품들이 이어졌다. 스파크 앤 벨은 버려진 CD 케이스 120장을 재활용해 만든 상들리에를, 아이푼기는 군사체 복합 소재로 제작한 의자와 램프를, 패치 디자인은 폐어망을 조형 오브제로 재해석한 설치를 선보였다.

1 아이푼기의 군사체 복합 소재 조명 ‘캄피노 서스펜던트 램프’. **2**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91-92의 파스칼 조명. **3** 미국 하드우드 수출협회가 주최한 1층 전시 공간. **4** 패치 디자인이 폐어망으로 만든 오브제. **5, 6, 7** 수집부터 가공까지 100km 반경 내에서 이루어진 R100 컬렉션. **8, 9** 조명과 바스켓 등 리사이클 소재로 만든 컬렉션.



5



6



7

100km 안의 혁신, 하이드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100% 재활용 알루미늄 ‘하이드로 씨클 100R’을 산업 규모로 선보인 노르웨이의 알루미늄 기업 하이드로는 올해 운송 단계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프로젝트 ‘R100’을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소재의 수집부터 제품의 완성까지 전 공정을 반경 100km 안에서 해결하는 실험적 시도였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역사적 건물 감멜 독 파쿠스에서 열린 전시 <R100>은 알루미늄 가공의 전 과정을 단일 지역 안에서 실행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기존 프로젝트 대비 90% 이상 감축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제품뿐 아니라 전시 구조물에 사용된 알루미늄까지 모두 해체된 온실과 가로등에서 수거한 총 52톤의 폐기물로 제작되었다.



8

© Amin Tehrani

생명에서 탄생한 새로운 소재, 마이코웍스

2013년 예술가 필립 로스와 소피아 왕이 설립한 마이코웍스는 군사체 기반 생체 소재 분야를 개척해온 선구자다. 이들이 개발한 ‘리이시 Reishi™’는 자연의 섬세한 조직감과 가죽 같은 질감, 탁월한 내구성을 지닌 지속 가능한 신소재로, 패션부터 리빙, 테크 산업까지 폭넓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3dd에서 마이코웍스는 전시 <Reishi™ In the Nordic Light>를 통해 이 혁신적인 소재와 덴마크 디자인 전통의 만남을 선보였다. 코펜하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마라-루이즈 회스트보의 디렉션 아래 아틀리에 악소, 프레데릭 구스타브, 세실리에 만츠 등 덴마크 대표 디자이너 5인이 참여해 리이시를 활용한 가구와 오브제를 제안했다. 감각적인 질감과 구조, 지속 가능성이라는 오늘날 디자인의 핵심 가치를 품은 이번 전시는 리빙 오브제를 통해 생명 기반 소재의 미래를 조망하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9



1



2



3



4

New Voices, New Visions

새로운 세대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장르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다. 서로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이 협업으로 하나의 전시를 구성하거나, 전시 무대 역시 갤러리를 넘어 실제 거주 공간이나 도시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조각과 기능, 공예와 커뮤니티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장르 없는 공존, 아더 서클

아더 서클은 전시라기보다 하나의 선언에 가까웠다. 디자인, 예술, 음악, 음식, 패션까지 장르 구분 없이 동시대의 창작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은 실험의 장. 올해 3dd에서 첫선을 보인 이 플랫폼은, 분야를 나누기보다 그 사이의 접점을 탐색하며 새롭고 유연한 창작 방식에 주목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실라스 애들러는 “문화는 장르로 소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번 전시는 그 말을 실제로 구현한 사례였다. 메인 전시장인 더랩을 중심으로, 덴마크 디자인 뮤지엄에서의 협업 전시와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열렸다. 가에타노 페세, 마그너스 피터센, 닉 로스, 산타앤콜, 소든 등 다양한 브랜드와 작가들이 참여해, 각기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가 충돌하고 섞이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아더 서클은 고정된 형식보다 유연한 발상, 정제된 결과보다 즉흥적인 에너지에 무게를 두며, 지금 이 시대의 창작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낱것 그대로 보여준 플랫폼이었다.

1 마그너스 피터센의 조형적 오브제와 그 뒤 벽에 걸린 러그는 씨씨타피스. **2** 소든의 앙증맞은 조명들. **3, 5** 가에타노 페세 컬렉션. **4** 실타래를 엮어 만든 볼륨의 화병. **6**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닉 로스의 연출. **7, 8** 30여 개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집’에 대한 상상력을 연출했다. **9** 대만 신진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인 판지의 전시. **10** 코비 황의 The Mat(Stainless Steel). **11** 마라-루이즈 호스트보의 The Mat(Wood). **12** 윌렘 반 호프의 유리 오브제. **13** 단순한 재료로 다양한 오브제를 선보인 프로젝트 마테리아.



5



6



7



8

집에 대한 집단적 상상, 누라 레지던시

코펜하겐 중심가의 예술적 레지던시 공간 누라 레지던시에서는 일상과 감각의 경계를 탐구하는 전시 <Home from Home>이 펼쳐졌다. 디자이너 샬롯 테일러와 마에바 마수티에가 공동 큐레이션한 전시는 '집'이라는 공간이 시간과 감정,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빛과 물성, 리듬으로 풀어냈다. 전시는 총 2주일에 걸쳐 각각 다른 아파트에서 열렸으며 버켄스타, 테클라, 이숨, 아르케 등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포함한 30여 개 팀의 디자이너,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조명, 향, 소리, 사진, 텍스타일, 가구, 조형물까지 다양한 감각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간의 내러티브를 형성한 시간이었다.

움직이는 감각, 판지

대만을 기반으로 하는 아트 큐레이션 플랫폼 판지가 코펜하겐에서 감각적인 그룹 전시 <Optical Flow>를 선보였다. 전시는 오브제와 공간, 지각 사이의 흐름에 주목하며 고정된 형태가 아닌 유동하는 감각을 중심에 둔다. 조명, 가구, 요가 스토리지 시스템, 기능적 오브제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대만 신진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코펜하겐 디자이너 마리-루이즈 회스트보도 참여했다. 그녀는 '살아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는 덴마크의 전통적 감성과 판지의 실험적 접근을 연결하며, 요가 매트를 위한 오브제 'The Mat (Wood)'를 완성했다. 기능과 의식, 일상을 연결하는 이번 전시는 국제 디자인 무대에서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타이완 디자인의 섬세함과 실험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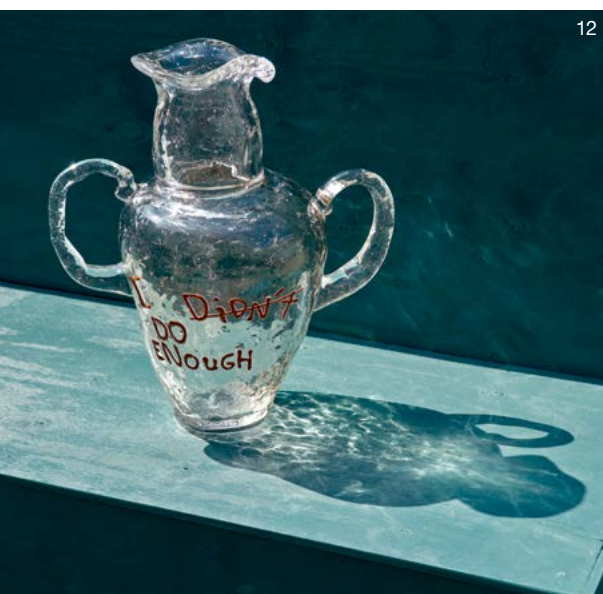
9



11



10



12



13

재료가 빛은 조형의 언어, 타블로

플라워 기반의 창작 스튜디오 타블로는 아트 플랫폼 에디션 솔렌과 함께 공예와 커뮤니티를 주목한 프로젝트 <Project Materia>를 공개했다. 안드레아스 라이징어, 라우리드 갈레, 루이즈 로, 윌렘 반 호프 등 9명의 국제적인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해 청동, 대리석, 유리의 세 가지 기초 재료에 대한 조형적 잠재력을 탐구한 것. 중정에는 작가별로 구성된 9개의 스탠드가 설치되어 소규모이지만 집중도 높은 전시를 연출했으며, 모든 작품은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의 워크숍에서 재료 장인들과 협업해 제작되었다. 과거부터 사용된 전통 재료들이 창작 과정과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며 조각과 디자인, 기능적 오브제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INSIDE THE SCENES

코펜하겐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외신 기자들과 디자인 앰배서더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인상 깊은 장면들.
페어의 겉모습 너머, 그들이 직접 보고 느낀 순간들을 꺼내본다.

EDITOR 원지은, 문혜준



레이어드와 헤더 촌토스의 협업 전시



아만다 페버

브라질 <아키텍처> 헌터 창립자&편집장 아만다 페버

샬롯 테일러의 <Home from Home>은 올해 3dd에서 가장 진정성 있게 다가온 전시 중 하나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생활감, 빛과 감정의 흐름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복잡하고 섬세한 정서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약 40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전시용 쇼룸처럼 꾸며진 인스타그램 속 세팅과는 확연히 달랐다. 거칠고, 몰입감 있으며, 진짜 같았다. 그 점이 오히려 더 신선했다. 하이드로의 R100 컬렉션은 재활용 알루미늄에 이어, 이번엔 반경 100km 이내에서만 자재를 조달했다. 마케팅이 아닌 꾸준한 실천으로 느껴져 더욱 진정성 있었다. 스웨덴 러그 브랜드 레이어드와 아티스트 헤더 촌토스와의 협업도 인상 깊었다. 회화를 러그로 직조하는 섬세한 작업이었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타 분야와의 대화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과잉 생산 시대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온 전시였다.

이탈리아 <인테르니 매거진> 수석 에디터 카트린 코세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 스튜디오 중 하나인 빅 BIG은 새로운 본사를 일반에 공개했다. 동시대 디자인의 현장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드문 기회였고, 1층과 옥상에서 전개된 소재 중심 전시도 매우 세련되고 인상적이었다. 특히 이탈리아 브랜드 네로시칠리아와 함께한 에트나 화산석에 대한 리서치는 실험성과 미학을 모두 갖춘 훌륭한 협업이었다. 프레데리시아가 복각한 나나 디첼의 1989년 작품 '벤치 포 투'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조형적인 실루엣, 그래픽적인 구성,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캐릭터까지 모든 요소가 디첼의 반항적이고 비순응적인 디자인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전통 덴마크 디자인의 궤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그녀의 유산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



새롭게 문을 연 빅 본사



카트린 코세타



나나 디첼의 벤치 포 투

독일 <챗터 매거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제나나 무아지치

올해 3dd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섬세함이었다. 그중에서도 '함께하는 식사'의 장면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도자기 공방 카우프만 케라믹에서 가진 저녁 식사는 음식의 맛뿐 아니라 창의적인 연출, 테이블 위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그대로 전해졌고, 그 모든 디테일이 하나의 디자인처럼 느껴졌다. 도시 곳곳에서 마주친 순간도 인상 깊었다. 오래된 건물 속 낮은 계단과 작은 창, 숨은 중정과 구석진 복도... 평범한 공간도 매력적인 경험으로 바뀌어내는 덴마크 특유의 디자인 감각이 다시금 놀라웠다. 작고 사적인 구조조차 빛나는 무대로 탈바꿈하는 도시였다.



제나나 무아지치



카우프만 케라믹의 케이터링



e15의 파라 에브라히미와 필립 마인처



마인드폴네스 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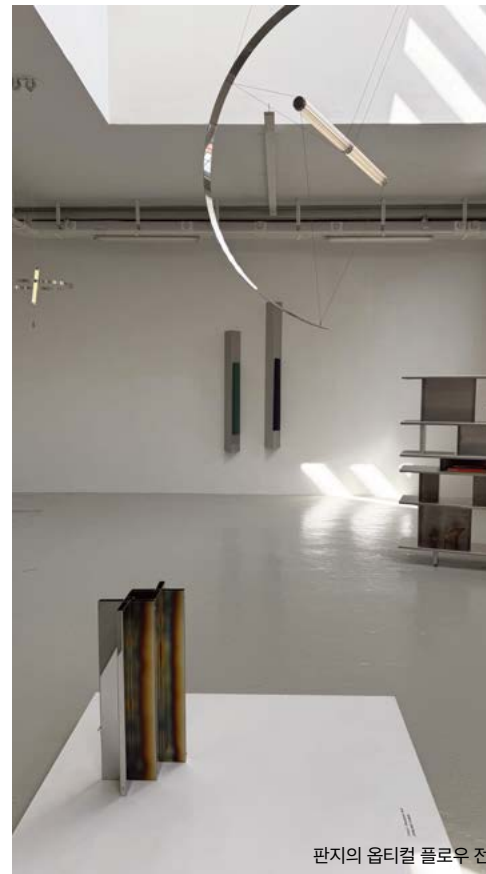
사이 라이트

독일 <스타일파크 매거진> 편집장 안나 몰덴하우어

빅 스튜디오에서 본 스튜디오 드리프트의 룬네케 고르다인과의 대화가 특히 인상 깊었다. 그녀는 알프 나우타와 함께 기술을 통해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키네틱 설치와 퍼포먼스를 만든다. 전시장에는 '사이 라이트'를 비롯해 스튜디오 휴먼의 키네틱 시계 '어 밀리언 타임스', 솔리드 네이처의 '머테리얼 라이브러리' 그리고 부탄 건축의 미래를 다룬 '마인드폴네스 시티' 프로젝트의 목공 작업까지, 다양한 접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이 페어의 진짜 매력은 전시 사이사이에 만나는 사람들이다. 구비에서 토비아 스카르파를, 디자인/다이얼로그 전시에서는 e15의 파라 에브라히미와 필립 마인처를 만날 수 있었다.

미국 온라인 플랫폼 <리벌> 창립자 레오 레이

프레스 투어 중 가장 먼저 본 전시 중 하나가 판지 갤러리였다.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보곤 하는데, 이 갤러리는 처음 보는 곳이었다. 대만을 기반으로, 덴마크 디자이너들의 협업을 통해 기능적이면서도 조형적인 오브제를 선보였다. 보통 방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이는 요가 매트를 수납할 수 있는 오브제 두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리 브룸 전시는 정말 좋았다. 예전부터 그의 팬이었고, 뉴욕에서 열린 북 론칭 때 그의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전시는 아시아 하우스라는 역사적 건물에서 열렸고, 조명 작품을 담은 목재 상자를 프레임으로 활용한 연출이 아주 창의적이었다. 그 건물이 해양 운송과 관련된 과거를 가진 것도 잘 연결되면서 매우 영리하고 창의적인 연출이었다. 아더 서울은 프로그램 중에 잠깐 짬이 나는 여유 시간에 들렀는데, 내가 리벌 Leibal에서 다루는 브랜드가 몇몇 참여하고 있었다.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지만, 공간도 좋았고 노마 프로젝트에서 준비한 저녁도 있었다. 독립 디자이너들에게는 훌륭한 기회였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랐다.



판지의 옵티컬 플로우 전



레오 레이



아더 서울 전시 전경

포르투갈 오 아파토멘토 PR 매니저

이네스 그라카

프랑스대사관에서 개최된 <French Fiber: Spotlight on French Textile Design> 전시 오프닝에서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이다. 첫 번째 사진은 프랑스 작가 모나 카라의 인상적인 작품 'La mer poubelle'의 디테일을 담고 있다. 유머와 역사, 직조와 시를 절묘하게 엮어내며,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토트 궁전 안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전했다. 두 번째 사진은 그런 공간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우아하고 여유로운 동시에, 영감을 주는 이들은 창가에 기대어 콩겐스 뉘토브 광장을 내려다보며, 예술을 핑계 삼아 더 큰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배경에 보이는 상징적인 광장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진다. 이 도시에서는 어디를 가든 예술이 공기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네스 그라카



모나 카라의 작품



예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플로스의 말 조명



엘리사 콰지오



엘리사 콰지오가 직접 촬영한 테클라 에벨리나 세베린의 사진

이탈리아 포토그래퍼

엘리사 콰지오

이탈리아인인 내게 플로스는 단순한 조명 브랜드 그 이상이다. 이는 곧 탁월함의 상징이다.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면서, 플로스가 오랜 시간 지켜온 가치와 혁신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행사 기간에 만난 인테리어 건축 디자이너 테클라 에벨리나 세베린은 내게 대단한 영감을 주는 인물인데, 친구 브랜드 오픈 전시에서 그의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정말 기뻐다. 이 경험은 3dd의 핵심 가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닌 개방성과 너그러움, 그리고 그들의 열정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말이다.

덴마크 산업 디자이너

올리버 라스크

‘디자인 워크’는 전시 뒤에 숨은 창작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3dd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디자이너 리 브룸은 이를 통해 관람객들과 직접 소통했다. 디자이너와 관람객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작품 뒤의 인물을 만나는 경험은 디자인과의 관계를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준다. 단순한 전시가 아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재탄생하는 경험. 앵커앤코 전시장에서 촬영한 또 다른 사진은 해질녘, 혹은 해돋이를 연상케 하는 따뜻한 빛에 이끌린 관람객들이 그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는 듯한 장면을 담았다.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 조명이 공간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다. 3dd에서는 이처럼 ‘좋은 디자인’이 물건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의 분위기와 감정,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감각적인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노르웨이 가구 디자이너

로나 레지스타드

사람들로 북적이는 작은 옷가게 한쪽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집중하며 일본 브랜드 아틀리에 m4 를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섬세함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지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흥미로웠다. 디자이너로서 수많은 모형 제작을 해왔지만, 이런 수준의 수공예를 가까이서 마주할 때마다 늘 깊은 존경심이 생긴다. 버거 가게 포플에서 앰배서더들과 함께 보낸 저녁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물가에 앉아 햇살과 연기로 가득한 장면은 영화처럼 선명하다. 프레데리시아 루프톱 파티에서 바라본 코펜하겐의 석양은 이 페스티벌의 마법을 그대로 보여줬다. 음악이 배경으로 사라질 만큼,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참 행운이었다.



올리버 라스크



리 브룸의 디자인 워크에서



앵커앤코 전시장의 사람들



프레데리시아 루프톱 파티에서 바라본 석양



아틀리에 m4를 위해 작업 중인 남성



로나 레지스타드

한국 건축가

이지은

덴마크 티하우스 A.C. 퍼치 A.C. Perch와 한국 디자인 브랜드 에디션 덴마크가 함께 선보인 다도 행사 장면. 한국과 덴마크의 전통이 조용하고 시적인 방식으로 하나가 된 이 의식은 개인적으로도 큰 울림을 주었다. 덴마크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건축가로서 내 디자인 여정을 상징하는 장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의식과 재료를 통해 공통점을 찾고, 느낌과 의도라는 공동된 가치를 통해 만나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디자인이 단지 오브제나 미학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의례’와 공간이 주는 정서적 경험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경험이었다.



A.C. 퍼치와 에디션 덴마크의 다도 행사 장면



이지은 건축가



손끝의 조형, 루이스 로

한때 온라인으로만 동경하던 오브제 브랜드 루이스 로를 직접 마주하게 된 순간. 2018년 오픈한 루이스 로 갤러리는 브랜드의 조형적 미학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미니멀하지만 결코 평면적이지 않은 디자인, 재료 고유의 질감과 형태에 집중한 조형 언어가 공간 전체를 채운다. 스톨, 글라스, 오브제, 조명 하나하나가 단정한 조각처럼 놓여 있고, 갤러리 한쪽에는 로컬들이 사랑하는 카페 '더 로 바 The Roe Bar'가 함께 자리한다. 이번 3dd에서는 디자이너 듀오 멘체 오텐스타인과 루이스 로 앤더슨의 협업으로 완성한 새로운 가구와 오브제를 대거 선보이기도 했다.

MOMENTS IN THE CITY

디자인 페어의 열기를 뒤로하고, 3일간 머물며 발견한 인상적인 장소들.
호텔, 갤러리, 디자인 숍, 레스토랑과 카페까지 코펜하겐의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는 투어 가이드.

EDITOR 원지은



무채색 풍경, 스튜디오 올리버 구스타프

코펜하겐 기반의 디자이너 올리버 구스타프의 스튜디오. 역사적 뮤지엄 빌딩을 개조해, 그의 독창적인 '멜랑콜릭적 순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자체 제작 가구 라인인 리미티드 오브제, 세계 각국에서 엄선한 디자인 제품, 희귀 앤티크로 가득하다. 15년간의 세계 탐험에서 비롯한, 장르와 시대를 초월하는 모노크롬적 미학이 오감을 사로잡는다. 현재 이곳에서는 미셀 라미와 함께한 전시 <Staging>이 열리고 있다. 릭 오웬스의 조각 같은 가구를 중심으로, 스칼렛 루즈, 지오반니 바산 등의 예술 작품이 공간을 채운다. 사전 예약은 필수며, 운이 좋다면 열정 가득한 구스타프의 큐레이션 아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탐독하는 서점, 뉴 맥스

책과 예술이 만나는 공간. 2016년 덴마크 유틀란드의 호르센스에서 에스퍼 스반가드와 에스퍼 옥스홀름 미켈센에 의해 설립되어, 2021년 코펜하겐 첫 쇼룸으로 확장됐다. 놔 아키텍츠의 요나스 비에르 푸울센이 설계한 쇼룸은 고전 도서관의 품격을 현대 노르딕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그저 책을 진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머물며 탐독’하고픈 분위기가 특징. 이번 3dd 기간에는 펄리빙과 함께 온 웃손의 집에서 영감을 받은 전시와 북토크를 선보이며 책과 공간, 디자인을 입체적으로 엮어낸 바 있다.



50년대로의 체크인, 호텔 알렉산드라

덴마크 디자인의 황금기이던 1950년대를 고스란히 품은 부티크 호텔. 핀 울, 아르네 야콥센, 베르너 팬톤 등 데니시 모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의 오리지널 가구가 객실마다 놓여 있다. 각기 다른 디자이너에서 영감을 받아 꾸민 22개 객실은 작지만 조화롭고, 시대적 디테일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맞춤형 멀티 퍼니처, 우드 톤 중심의 따뜻한 소재감, 최소한의 조명까지. 작지만 포근했고, 무엇보다 폭 안기는 듯한 침대 덕분에 꿀잠이 가능한 곳. 호텔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렌탈 서비스도 꼭 이용해보길! 도시를 천천히 둘러보기에 이보다 더 코펜하겐다운 방법은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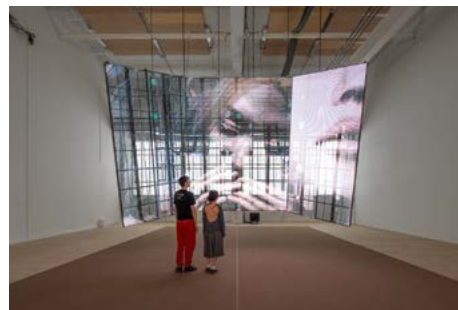
낮선 호텔의 등장, 호텔 프라이하븐

노르드하븐은 코펜하겐 북동쪽 끝자락으로서, 오래된 항구를 재생해 만들어진 신흥 개발지다. 산업 유산을 그대로 품은 이곳엔 지금도 새 건물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고, 바다와 메트로가 공존하는 드문 구조 덕에 조용하고 느리게 흐른다. 이곳에 새롭게 등장한 호텔 프라이하븐 Frihavn은 이번 3dd 기간에 기자단을 위해 단 3일간 사전 오픈을 했다. 아직 구글 검색도 되지 않고, 외벽 공사가 한창이었다. 방 구조는 꽤 독특한 편이다. 낮은 계단을 몇 개 오르면 침대가 있고, 다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아주 작은 라운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대리석 위에 나무로 짠 의자 2개, 침대와 연결된 작은 책상과 벽 조명 등 호텔보다는 디자인 레지던시 성격에 가까워 보인다. 호텔 바로 앞엔 아틀리에 셉템버가, 가까운 거리에 오도 하우스 호텔이 있다. 정식 오픈은 8월이다.



현대미술의 심장, 코펜하겐 컨템포러리

현대미술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 리프스할레 섬의 대형 용접 공장을 개조해 만든 7000㎡ 규모의 국제 아트센터로 설치미술, 퍼포먼스, 비디오아트 등 대규모 현대미술을 전시한다. 2016년 설립 이래 요코 오노, 브루스 나우먼, 클라우디아 콤테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전시를 개최해왔다. 현재는 전시 <Soft Robots>가 진행 중이다. 인간과 기계 사이의 감정, 정체성, 기술의 윤리를 탐색하는 15개 팀 작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미래 기술 생태를 표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갈 계획이라면, 근처 코펜하겐 스트리트 푸드 마켓에서 음식을 즐기거나 항구를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해볼 것을 추천한다.



캐비아 듬뿍 올린 파스타, 바라바

덴마크 현지인에게 추천받아 찾은 바라바. 코펜하겐의 밤을 제대로 즐기고 싶을 때 꼭 들러야 할 레스토랑이다. 커다란 네온사인이 거리를 밝혀주며, 테라스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테이블 세팅과 심플한 다이닝 룸이 대비를 이룬다. 클래식한 4코스부터 와인 페어링이 포함된 8코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이곳 마니아들이 극찬하는 시그니처 메뉴는 버터와 콜라투라 디 알리치(캄파니아식 앤초비 소스), 그리고 캐비아를 아낌없이 올린 스파게티다. 재료는 단출하지만 그 조합과 밸런스가 근본에 충실했고, '심플 이즈 더 베스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줬다. 현지 셰프들과 식음업계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는 사실 또한 그 맛과 분위기의 진정성을 증명해준다.



한입의 코펜하겐, 스튜디오×키친

코펜하겐 중심가, 프레데릭스스타덴 인근의 가장 트렌디한 카페 중 하나. 아틀리에 샵템버, 프라마, 보테가 발리에 등과 함께 이 지역 특유의 '쿨 바이브'를 퍼뜨린다. 이 합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스튜디오×키친은 벨기에 듀오 몰러 반 세베른의 디자인 가구들이 중심을 이루는 공간이다. 미니멀하면서도 차가운 듯 세련된 노르딕 감성을 전한다. 아침엔 커피와 조식, 낮에는 가벼운 런치와 달콤한 패이스트리를 즐길 수 있다. 피크 타임에 방문하면 오랜 시간 웨이팅하게 될 수 있으니 붐비는 시간을 피할 것!

시대를 넘나드는 안목, 뤼 베르트

1994년, 미칼라 예센이 설립한 뤼 베르트는 코펜하겐 디자인 신의 상징 같은 존재다. 1700년대 건물 특유의 우아함 위에, 동시대 디자인과 빈티지 오브제를 절묘하게 조율해 감각적인 공간을 완성한다. 한 점 한 점 선별한 아트 피스와 가구가 어우러진 쇼룸에는 시간의 결이 느껴지고, 같은 공간에 자리한 뤼 베르트 갤러리는 덴마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신진 및 기성 작가들의 전시도 이어진다. 이번 3dd 기간에는 세계 각지의 디자이너들과 협업한 하이엔드 가구와 예술 오브제를 큐레이션해, 뤼 베르트만의 안목이 돋보이는 특별한 쇼케이스를 펼쳤다.



한낮의 낭만, 라 반치나

코펜하겐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곳. 항만 노동자들의 대기실로 사용되던 작은 목조 건물에 들어선 레스토랑 겸 와인바. 매일 아침 조식을 시작으로, 그날그날의 농장에서 직접 들어온 재료로 만든 요리를 선보인다. 메뉴에는 고기가 없고, 대신 신선한 생선 요리와 커피, 구운 빵, 내추럴 와인이 자리한다. 메뉴는 매일 창문에 써 붙인다. 예약 없이 매력적인 블루 하우스 안팎 어디든 자리를 잡으면 된다. 레스토랑 옆 부두에서는 연중 수영을 즐길 수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 사우나도 예약할 수 있다. 데크에 자리를 잡고 하나둘 물속으로 뛰어드는 코펜하겐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곳이야말로 천국이 아닐까' 싶던, 그 여유롭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아직 눈에 선하다.



미쉐린 스뵈레브뢰드, 아만스 1921

스뵈레브뢰드 하나로 미쉐린의 주목을 받은 곳. 덴마크 점심 문화의 품격을 완전히 새로 쓴 레스토랑 아만스 1921은 아담 아만스가 2006년 문을 연 이래, 한때 저급한 패스트푸드로 치부되던 오픈 샌드위치를 섬세한 요리로 끌어올렸다. 직접 갈아 만든 사워도우 호밀빵 위에 수제로 마리네이드한 청어, 크림리한 무스, 신선한 채소와 크런치한 토핑이 정교하게 겹쳐진다. 그 완성도는, '오픈 샌드위치계의 에르메스'라 불릴 만하다. 정통 덴마크식으로 즐기고 싶다면, 스뵈레브뢰드 한 접시에 덴마크 스타일의 샷 스냅스를 곁들여보자. 허브를 우려낸 스냅스는 매끄러우면서 깊은 풍미로 음식의 감도를 한층 끌어올려줄 것이다.